

◆ 2015년 9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0%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0%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함.

◆ 201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9% 상승(생활물가지수 0.1% 상승)

- 201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05(2010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함(전월대비 변동 없음).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50.2%), 음식·숙박(2.5%), 교육(1.8%), 식료품·비주류음료(1.9%)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6.7)과 주택·수도·전기·연료(-0.4%)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10월 생활물가지수는 107.71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함(전월대비 0.1%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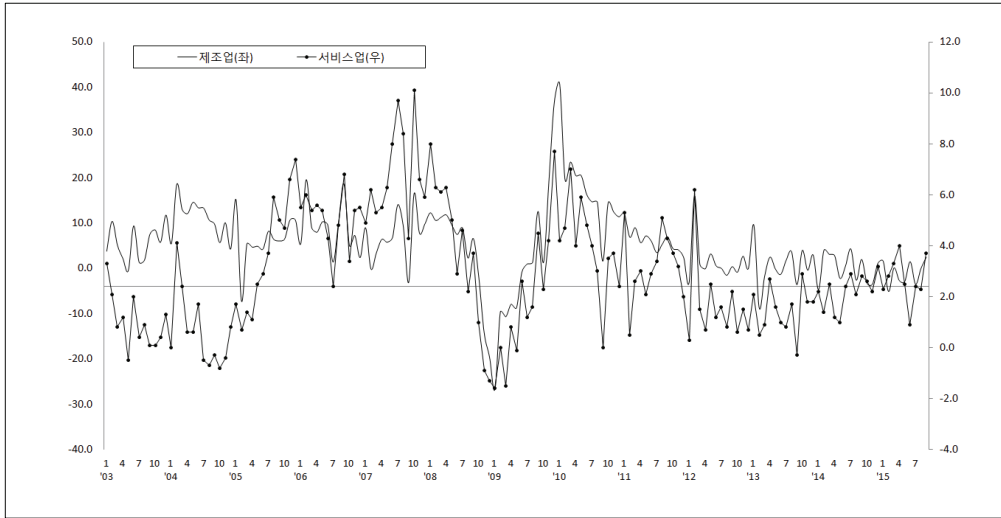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9월	1/4	2/4	3/4p	9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2.0	-0.9	-1.5	-0.3	2.4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2.0	-1.0	-1.4	-0.5	2.5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1.9	-0.7	-1.3	0.7	3.5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2.0	-0.7	-0.1	0.9	3.1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1.6	-0.6	-2.5	0.4	4.1
	서비스업 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8	2.8	2.5	2.8	3.7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1.4	1.6	2.9	3.1	5.5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12.8	8.4	5.2	9.9	7.1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1.2	0.6	0.5	0.7	0.9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10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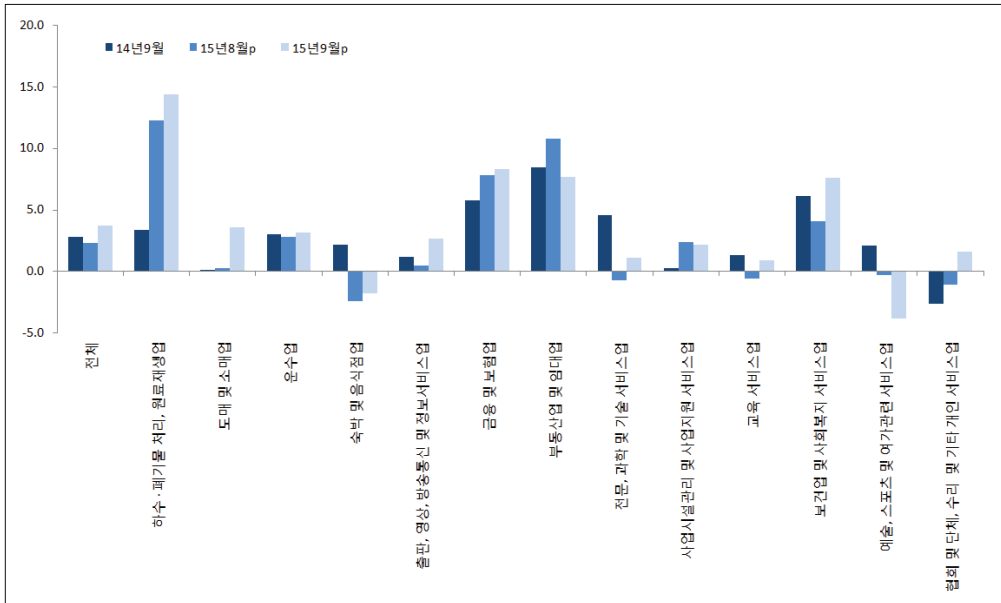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5년 7월, 8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 10), 『2015년 8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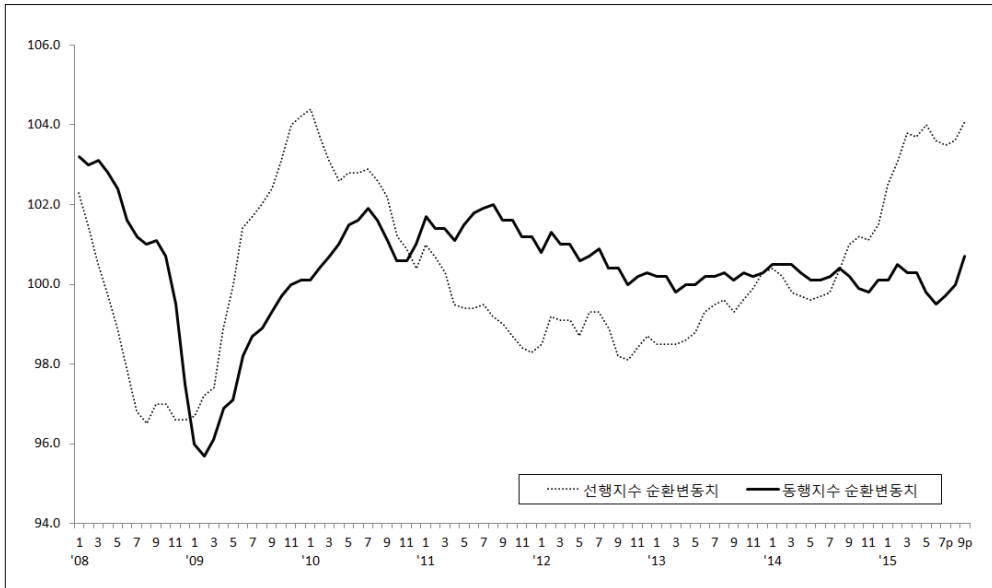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고용 동향

◆ 취업자 증가세 유지, 실업자 감소

- 2015년 10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1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8천 명(1.2%)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609천 명으로 115천 명(0.7%) 증가하였고, 여성은 11,529천 명으로 214천 명(1.9%) 증가하였음.
- 2015년 10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9%)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여성(52.4%)은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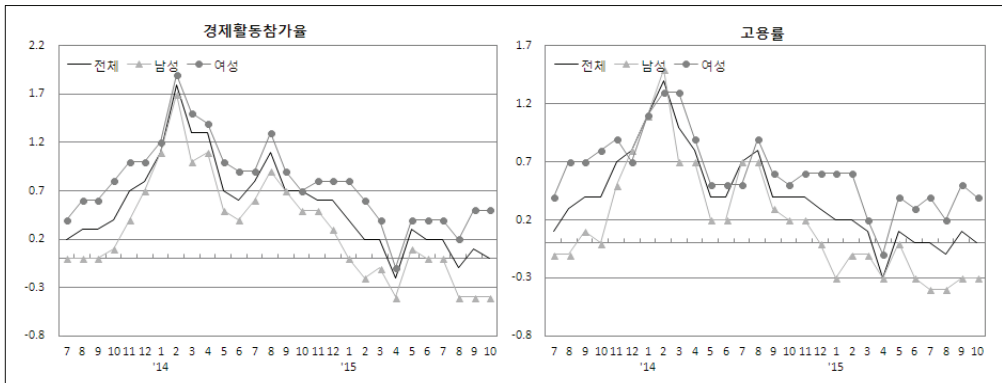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경제활동인구	25,945 (3.4)	26,767 (2.4)	26,810 (2.4)	26,622 (2.1)	26,809 (2.1)	26,356 (1.6)	27,140 (1.4)	27,166 (1.3)	27,129 (1.4)
참가율	61.3	63.1	63.0	62.4	62.9	61.5	63.2	63.0	62.9	62.9
취업자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767 (1.7)	25,951 (1.6)	25,267 (1.4)	26,098 (1.2)	26,237 (1.2)	26,264 (1.3)	26,298 (1.3)
고용률	58.8	60.8	60.9	60.4	60.9	59.0	60.7	60.9	60.9	60.9
실업자	1,031	977	884	854	858	1,089	1,042	929	866	839
실업률	4.0	3.7	3.3	3.2	3.2	4.1	3.8	3.4	3.2	3.1
비경제활동인구	16,397 (-2.6)	15,685 (-1.4)	15,760 (-1.4)	16,066 (-0.6)	15,837 (-0.7)	16,469 (0.4)	15,835 (1.0)	15,921 (1.0)	15,990 (0.9)	16,012 (1.1)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5. 11), 『2015년 10월 고용동향』.

- 2015년 10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01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5천 명(1.1%)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2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8천 명(2.9%)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8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천 명(0.2%)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7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천 명 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6천 명(8.9%)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92천 명으로 123천 명(-2.9%) 감소하였음.

〔그림 4〕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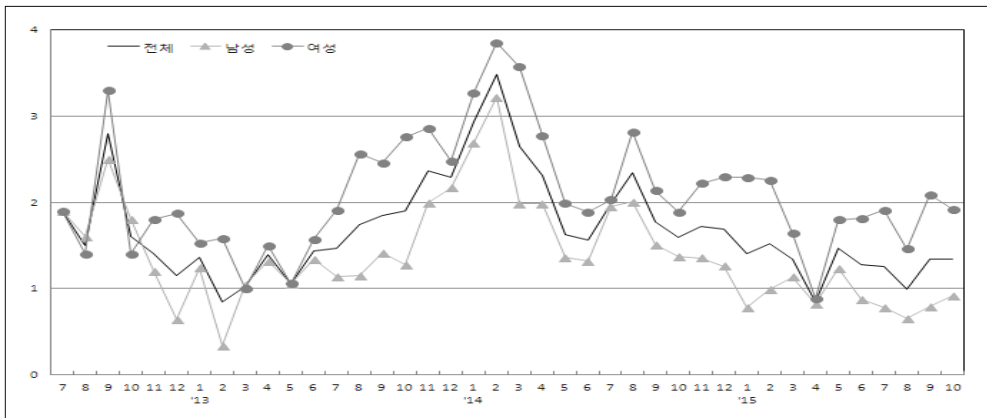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10월 중 취업자는 26,2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7천 명(1.3%)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5,11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천 명(0.9%)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1,18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0천 명(1.9%) 증가하였음 (그림 5 참조).
- 2015년 10월 중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여성의 고용률은 5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5년 10월 중 실업자는 8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 명(-2.3%) 감소,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49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 명(-4.2%)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4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0.7%)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여성은 3.0%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증가

- 2015년 10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15~29세(101천 명, 2.6%), 40~49세(33천 명, 0.5%), 50~59세(126천 명, 2.1%), 60세 이상(136천 명, 3.6%)에서 증가한 반면, 30~39세(-47천 명, -0.8%)에서 감소함.
 - 교육정도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고졸(95천 명, 0.9%), 대졸 이상(442천 명, 4.0%)에서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190천 명, -4.1%)에서 감소하였음.

〈표 3〉 연령별, 교육수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9월	10월
전 체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767 (1.7)	25,951 (1.6)	25,267 (1.4)	26,098 (1.2)	26,237 (1.2)	26,264 (1.3)	26,298 (1.3)
15~29세	3,840 (2.6)	3,843 (1.4)	3,941 (2.7)	3,855 (1.5)	3,850 (2.0)	3,872 (0.8)	3,933 (2.3)	3,991 (1.3)	3,956 (2.4)	3,951 (2.6)
30~39세	5,672 (-0.1)	5,721 (-0.7)	5,741 (-0.1)	5,722 (-0.5)	5,723 (-0.4)	5,671 (0.0)	5,665 (-1.0)	5,681 (-1.0)	5,671 (-1.2)	5,676 (-0.8)
40~49세	6,645 (1.5)	6,704 (0.5)	6,678 (0.2)	6,700 (0.1)	6,711 (0.0)	6,598 (-0.7)	6,690 (-0.2)	6,679 (0.0)	6,707 (0.3)	6,744 (0.5)
50~59세	5,684 (6.0)	5,878 (4.0)	5,891 (3.8)	5,926 (3.3)	5,936 (2.9)	5,861 (3.1)	6,016 (2.3)	6,036 (2.5)	6,049 (2.3)	6,062 (2.1)
60세 이상	3,072 (7.6)	3,643 (5.5)	3,676 (5.5)	3,565 (6.0)	3,731 (5.2)	3,265 (6.3)	3,793 (4.1)	3,850 (4.7)	3,882 (4.7)	3,867 (3.6)
중졸 이하	4,210 (-3.1)	4,664 (-4.8)	4,614 (-4.0)	4,472 (-3.5)	4,645 (-4.4)	4,070 (-3.3)	4,495 (-3.6)	4,461 (-3.3)	4,467 (-3.5)	4,455 (-4.1)
고졸	9,908 (2.6)	10,060 (2.1)	10,224 (3.3)	10,229 (3.0)	10,249 (3.4)	10,117 (2.1)	10,244 (1.8)	10,317 (0.9)	10,291 (1.1)	10,344 (0.9)
대졸 이상	10,795 (6.0)	11,067 (4.7)	11,089 (3.6)	11,067 (2.7)	11,057 (2.7)	11,080 (2.6)	11,360 (2.6)	11,458 (3.3)	11,506 (3.5)	11,499 (4.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5. 11), 『2015년 10월 고용동향』.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지속

- 2015년 10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9,529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84천 명(3.1%)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6,77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5천 명 (-3.4%)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801천 명으로 565천 명(4.6%), 임시근로자는 5,208천 명으로 100천 명(2.0%)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520천 명으로 82천 명(-5.1%)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571천 명으로 159천 명(-2.8%), 무급가족종사자는 1,199천 명으로 76천 명(-6.0%) 감소하였음.
- 2015년 10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5천 명(3.0%),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393천 명으로 278천 명(1.3%)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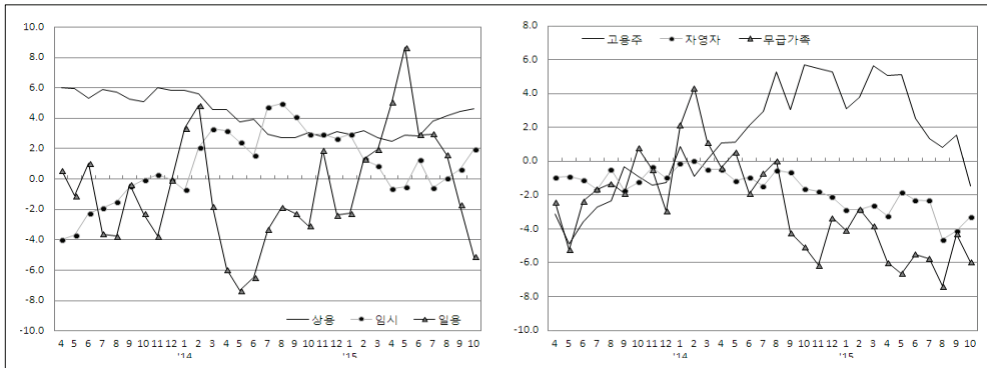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전 체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767 (1.7)	25,951 (1.6)	25,267 (1.4)	26,098 (1.2)	26,237 (1.2)	26,264 (1.3)	26,298 (1.3)
비임금근로자	6,597 (0.3)	6,984 (-0.3)	7,047 (0.0)	6,799 (-0.8)	7,005 (-0.7)	6,509 (-1.3)	6,871 (-1.6)	6,836 (-3.0)	6,796 (-2.9)	6,770 (-3.4)
자영업주	5,512 (-0.1)	5,712 (-0.2)	5,760 (0.3)	5,625 (0.1)	5,730 (0.3)	5,463 (-0.9)	5,675 (-0.6)	5,623 (-2.4)	5,593 (-2.6)	5,571 (-2.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07 (0.0)	1,553 (1.4)	1,567 (3.7)	1,574 (5.5)	1,583 (5.7)	1,570 (4.2)	1,619 (4.2)	1,587 (1.3)	1,578 (1.5)	1,560 (-1.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5 (-0.2)	4,159 (-0.9)	4,192 (-0.9)	4,051 (-1.8)	4,147 (-1.6)	3,893 (-2.8)	4,056 (-2.5)	4,037 (-3.7)	4,015 (-4.1)	4,011 (-3.3)
무급가족종사자	1,085 (2.5)	1,272 (-0.6)	1,287 (-1.7)	1,175 (-4.9)	1,275 (-5.1)	1,046 (-3.6)	1,195 (-6.1)	1,212 (-5.8)	1,203 (-4.3)	1,199 (-6.0)
임금근로자	18,316 (4.0)	18,806 (2.6)	18,880 (2.8)	18,968 (2.6)	18,945 (2.5)	18,758 (2.4)	19,227 (2.2)	19,401 (2.8)	19,468 (2.9)	19,529 (3.1)
상용근로자	11,985 (5.3)	12,175 (4.1)	12,181 (2.8)	12,280 (3.0)	12,236 (3.0)	12,341 (3.0)	12,507 (2.7)	12,686 (4.1)	12,757 (4.5)	12,801 (4.6)
임시근로자	4,835 (1.5)	5,063 (2.4)	5,153 (4.6)	5,076 (2.9)	5,108 (3.0)	4,918 (1.7)	5,066 (0.1)	5,155 (0.0)	5,170 (0.6)	5,208 (2.0)
일용근로자	1,496 (2.1)	1,567 (-6.6)	1,546 (-2.5)	1,612 (-1.2)	1,602 (-3.1)	1,500 (0.3)	1,654 (5.5)	1,560 (0.9)	1,541 (-1.7)	1,520 (-5.1)
36시간 미만	3,593 (-35.4)	3,397 (-29.5)	5,229 (2.9)	3,659 (7.8)	3,498 (7.4)	3,689 (2.7)	3,661 (7.8)	4,848 (-7.3)	3,663 (3.8)	3,603 (3.0)
36시간 이상	20,829 (15.1)	22,090 (9.3)	20,184 (1.9)	21,779 (0.7)	22,115 (0.5)	21,091 (1.3)	22,120 (0.1)	20,895 (3.5)	22,295 (1.1)	22,393 (1.3)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5. 11), 『2015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5년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91천 명, 4.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65천 명, 2.9%), 전기·운수·통신·금융업(78천 명, 2.6%)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23천 명, -7.7%), 건설업(-27천 명, -1.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1천 명, -0.7%)에서는 감소함.

〈표 5〉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9월	10월
전 산업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767 (1.7)	25,951 (1.6)	25,267 (1.4)	26,098 (1.2)	26,237 (1.2)	26,264 (1.3)	26,298 (1.3)
농림어업	1,179 (1.0)	1,631 (-3.3)	1,603 (-7.0)	1,395 (-7.2)	1,607 (-8.3)	1,092 (-7.4)	1,505 (-7.7)	1,494 (-6.8)	1,489 (-7.5)	1,484 (-7.7)
제조업	4,279 (3.0)	4,319 (3.3)	4,346 (4.7)	4,374 (3.0)	4,361 (3.4)	4,418 (3.2)	4,466 (3.4)	4,511 (3.8)	4,512 (3.8)	4,552 (4.4)
전기·가스·증기·수도	80 (-1.2)	80 (-16.7)	83 (-13.5)	88 (0.0)	87 (-5.4)	91 (13.8)	91 (13.8)	92 (10.8)	94 (9.3)	97 (11.5)
하수, 원료재생·복원	80 (17.6)	90 (32.4)	90 (20.0)	89 (12.7)	88 (11.4)	89 (11.3)	89 (-1.1)	89 (-1.1)	89 (4.7)	86 (-2.3)
건설업	1,683 (1.6)	1,813 (0.7)	1,833 (3.3)	1,854 (4.0)	1,851 (2.6)	1,756 (4.3)	1,857 (2.4)	1,844 (0.6)	1,838 (-0.1)	1,824 (-1.5)
도매 및 소매업	3,774 (4.4)	3,744 (2.6)	3,799 (4.1)	3,848 (3.4)	3,816 (3.5)	3,848 (2.0)	3,775 (0.8)	3,763 (-0.9)	3,763 (-1.2)	3,724 (-2.4)
운수업	1,418 (1.8)	1,408 (-0.4)	1,400 (-1.8)	1,402 (-1.3)	1,395 (-0.8)	1,402 (-1.1)	1,410 (0.1)	1,415 (1.1)	1,413 (1.1)	1,411 (1.1)
숙박 및 음식점업	2,063 (7.5)	2,053 (6.2)	2,130 (6.5)	2,143 (5.7)	2,145 (7.4)	2,136 (3.5)	2,152 (4.8)	2,216 (4.0)	2,203 (3.8)	2,195 (2.3)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03 (2.8)	733 (5.2)	707 (1.1)	713 (3.6)	703 (3.7)	749 (6.5)	773 (5.5)	782 (10.6)	780 (11.3)	781 (11.1)
금융 및 보험업	854 (1.5)	847 (-3.3)	836 (-5.1)	813 (-5.1)	817 (-5.1)	788 (-7.7)	789 (-6.8)	787 (-5.9)	793 (-4.5)	790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7 (6.1)	496 (4.2)	516 (6.0)	512 (2.4)	524 (5.6)	514 (1.4)	535 (7.9)	539 (4.5)	542 (3.2)	550 (5.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1,024 (-1.3)	1,017 (0.4)	1,028 (1.4)	1,030 (0.8)	1,028 (1.0)	1,022 (-0.2)	1,029 (1.2)	1,064 (3.5)	1,066 (4.7)	1,056 (2.7)
사업서비스	1,165 (1.1)	1,192 (-1.2)	1,168 (0.2)	1,197 (2.5)	1,179 (0.5)	1,202 (3.2)	1,261 (5.8)	1,257 (7.6)	1,273 (10.0)	1,283 (8.8)
공공행정 등	925 (2.9)	1,001 (0.2)	980 (-1.1)	923 (-5.1)	951 (-5.1)	865 (-6.5)	960 (-4.1)	954 (-2.7)	952 (-3.0)	962 (1.2)

〈표 5〉의 계속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교육 서비스업	1,760 (4.4)	1,811 (3.4)	1,827 (2.2)	1,829 (3.6)	1,829 (3.4)	1,802 (2.4)	1,803 (-0.4)	1,816 (-0.6)	1,834 (-0.1)	1,871 (2.3)
보건업 및 사회복지	1,569 (8.1)	1,709 (8.9)	1,745 (9.1)	1,749 (9.6)	1,760 (9.2)	1,694 (8.0)	1,776 (3.9)	1,795 (2.9)	1,829 (3.9)	1,822 (3.5)
예술·스포츠·여가	384 (1.6)	380 (-3.3)	403 (0.8)	407 (2.5)	408 (3.8)	412 (7.3)	438 (15.3)	431 (6.9)	423 (4.4)	427 (4.7)
협회·단체·수리·기타	1,310 (-0.8)	1,319 (0.4)	1,295 (0.5)	1,273 (-4.0)	1,274 (-3.4)	1,267 (-3.3)	1,277 (-3.2)	1,276 (-1.5)	1,258 (-1.5)	1,279 (0.4)
가구내 및 자가	130 (-26.1)	120 (-32.2)	111 (-36.9)	103 (-34.4)	103 (-38.0)	94 (-27.7)	85 (-29.2)	77 (-30.6)	77 (-27.4)	71 (-31.1)
국제 및 외국기관	11 (37.5)	13 (85.7)	16 (166.7)	17 (88.9)	16 (77.8)	18 (63.6)	17 (30.8)	20 (25.0)	21 (31.3)	20 (25.0)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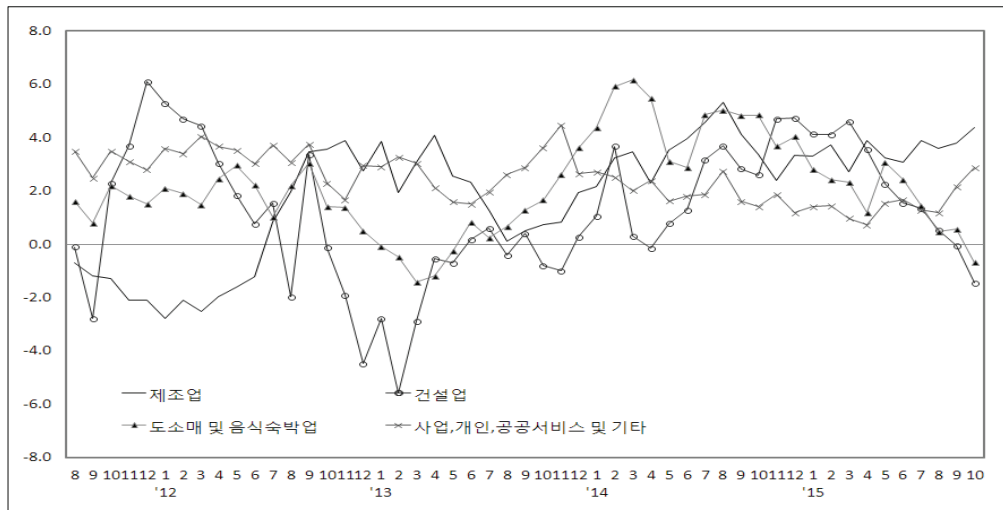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5. 11), 『2015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7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5년 8월 명목임금상승률은 크게 둔화(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2015년 8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198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3.8%p 둔화한 1.2%의 상승률을 보임.
 - 2015년 8월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둔화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369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1.0% 상승에 불과함. 이는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6.8%) 둔화와 특별급여 증가율(-13.3%) 감소에서 비롯됨.
 - 특히 특별급여의 감소폭이 컸던 데는 추석명절효과에서 기인. 추석이 2014년에는 9월 초에 있어 8월 중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사업체가 상당수 있었으나 2015년에는 추석이 9월 말에 있어 명절상여금의 지급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5년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2%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431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5년 1~8월 평균 명목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3.1% 상승
 - 2015년 1~8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245천 원, 3.1%)은 전년동평균대비 0.5%p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426천 원, 2.8%)은 전년동평균대비 0.1%p 상승했으나 정액급여(3.1%)는 전년동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
 -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1,416천 원, 1.9%)은 전년동평균대비 1.2%p 상승함.
- 2015년 8월 실질임금상승률 또한 크게 둔화(전년동월대비 0.5% 상승)
 - 2015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은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에 그친 반

면, 명목임금 상승폭 둔화가 확대되어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3.5%)에 비해 크게 둔화.

- 2015년 1~8월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2.5% 상승함. 동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 상승에 그친 반면, 명목임금 상승폭이 확대된 데 기인함.

〈표 6〉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2012	2013	2014	2015			
					1~8월		1~8월	
					평균	8월	평균	8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995 (5.3)	3,111 (3.9)	3,190 (2.5)	3,149 (2.6)	3,159 (5.0)	3,245 (3.1)	3,198 (1.2)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178 (5.3)	3,299 (3.8)	3,378 (2.4)	3,334 (2.7)	3,337 (5.0)	3,426 (2.8)	3,369 (1.0)
	정액급여	2,470 (5.5)	2,578 (4.4)	2,660 (3.2)	2,647 (3.2)	2,646 (3.1)	2,729 (3.1)	2,729 (3.2)
	초과급여	181 (1.0)	184 (1.7)	201 (9.3)	199 (9.2)	202 (11.8)	216 (8.5)	216 (6.8)
	특별급여	527 (5.8)	537 (1.8)	516 (-3.7)	488 (-2.3)	489 (13.2)	482 (-1.3)	424 (-13.3)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93 (6.4)	1,377 (6.5)	1,387 (0.7)	1,389 (0.7)	1,370 (-3.2)	1,416 (1.9)	1,431 (4.4)
소비자물가지수		106.3 (2.2)	107.8 (1.2)	109.0 (1.3)	109.5 (1.4)	109.5 (1.4)	110.2 (0.6)	110.2 (0.7)
실질임금증가율		3.1	2.5	1.3	1.2	3.5	2.5	0.5

-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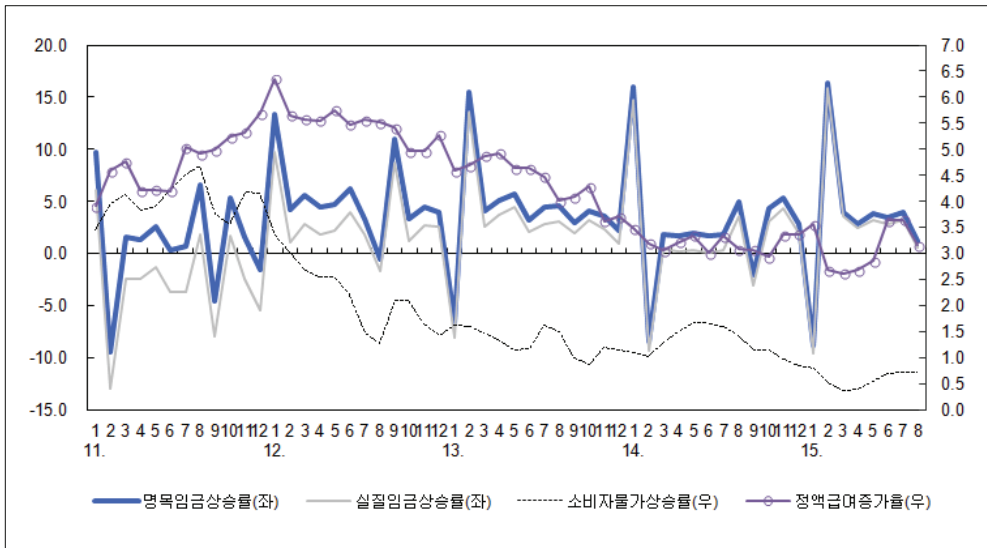
◆ 2015년 10월 협약임금 인상률 4.0%

○ 2015년 10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0%로 2014년 10월 인상률(4.4%)보다 0.4%p 하락함.

- 2015년 10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63.9%로 전년동월(51.5%)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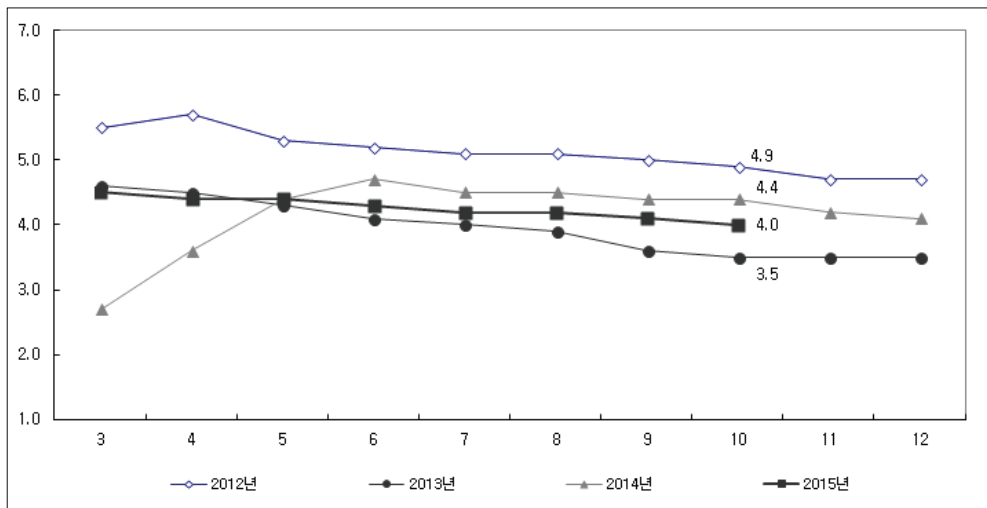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5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5년 8월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광업(3,472천 원, 8.1%)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2,436천 원, 8.1%)임.
 - 그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5,333천 원, 7.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700천 원, 4.5%) 등이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한 가운데 일부 산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임금상승률이 가장 저조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3,143천 원, -1.1%)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50천 원, -1.1%) 부문이었음.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전 산업	3,111 (3.9)	3,190 (2.5)	3,149 (2.6)	3,159 (5.0)	3,245 (3.1)	3,198 (1.2)
광업	3,557 (2.5)	3,480 (-2.1)	3,478 (-2.8)	3,212 (-3.0)	3,644 (4.8)	3,472 (8.1)
제조업	3,371 (4.7)	3,506 (4.0)	3,458 (4.4)	3,447 (5.3)	3,540 (2.4)	3,428 (-0.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42 (2.9)	5,554 (0.2)	5,306 (2.5)	4,598 (4.6)	5,474 (3.2)	4,612 (0.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743 (3.3)	2,812 (2.5)	2,766 (3.1)	2,836 (3.8)	2,870 (3.7)	2,861 (0.9)
건설업	2,414 (6.2)	2,497 (3.4)	2,471 (2.7)	2,428 (3.9)	2,575 (4.2)	2,503 (3.1)
도매 및 소매업	3,168 (1.5)	3,206 (1.2)	3,154 (1.7)	3,178 (4.8)	3,208 (1.7)	3,143 (-1.1)
운수업	2,732 (5.5)	2,805 (2.7)	2,738 (2.1)	2,892 (7.5)	2,892 (5.6)	2,975 (2.9)
숙박 및 음식점업	1,772 (1.9)	1,785 (0.7)	1,742 (0.4)	1,796 (-0.5)	1,791 (2.8)	1,786 (-0.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2.2)	3,905 (-0.8)	3,871 (-1.7)	3,838 (3.3)	3,960 (2.3)	3,851 (0.3)
금융 및 보험업	5,058 (1.4)	5,234 (3.5)	5,151 (2.0)	4,952 (8.3)	5,457 (5.9)	5,333 (7.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9 (3.4)	2,323 (2.3)	2,294 (2.4)	2,254 (7.0)	2,461 (7.3)	2,436 (8.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43 (3.2)	4,419 (4.2)	4,326 (5.6)	4,498 (8.2)	4,413 (2.0)	4,700 (4.5)
사업서비스업	1,883 (5.2)	1,924 (2.2)	1,898 (1.9)	1,906 (0.9)	1,974 (4.0)	1,934 (1.5)
교육서비스업	3,261 (4.4)	3,375 (3.5)	3,428 (2.4)	3,565 (6.7)	3,547 (3.5)	3,567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2.0)	2,700 (1.4)	2,644 (0.1)	2,678 (2.1)	2,735 (3.4)	2,650 (-1.1)
여가관련 서비스업	2,326 (5.2)	2,398 (3.1)	2,374 (3.6)	2,303 (5.4)	2,439 (2.7)	2,381 (3.4)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226 (-0.1)	2,249 (1.0)	2,213 (0.2)	2,264 (2.5)	2,277 (2.9)	2,345 (3.6)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며, 제조업(3,428천 원, -0.6%)과 음식숙박업(1,786천 원, -0.5%) 또한 임금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8월 현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333천 원)이며, 반대로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음식숙박업(1,786천 원)으로 나타남.

○ 2015년 1~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

- 2015년 1~8월 평균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2,461천 원, 7.3%)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5,457천 원, 5.9%), 운수업(2,892천 원, 5.6%) 순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았음.
- 반면 도매 및 소매업(3,208천 원, 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413천 원, 2.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3,960천 원, 2.3%), 제조업(3,540천 원, 2.4%) 등 일부 산업은 전산업 평균 임금상승률(3.1%)을 밑도는 1~2%대 상승률을 보임.
- 2015년 1~8월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474천 원)이며, 반대로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적은 산업은 음식숙박업(1,791천 원)으로 나타남.

◆ **2015년 8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크게 둔화(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2015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임금상승폭 둔화가 큼.

○ 2015년 8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각각 전년동월대비 0.5%, 1.0% 상승에 그침.

- 2015년 8월 기준 중소기업(5~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007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0.5% 상승에 그침. 이는 추석명절효과로 인한 특별급여 증가율의 감소(-17.0%)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4,798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1.0% 상승에 그침. 이는 추석명절효과로 인한 특별급여 증가율의 감소(-11.2%)와 더불어 정액급여 증가율의 둔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2015년 8월 비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대규모 사업체에서만 감소함.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한 1,575천 원인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한 1,420

천 원으로 나타남.

- 2015년 1~8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승
 - 중소기업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060천 원)은 전년동평균대비 3.2% 상승함으로써 임금상승률 확대. 이는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증가폭 확대에 기인
 -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4,923천 원)은 전년동평균대비 4.0% 상승함으로써 임금상승률이 둔화. 이는 정액급여 증가율의 둔화와 특별급여 증가율의 감소에 기인
 - 장기적으로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의 흐름으로 보면 중소기업 사업체는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증가율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표 8〉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8월		1~8월	
				평균	8월	평균	8월
전 규모 (5인 이상)	전체	3,111 (3.9)	3,190 (2.5)	3,149(2.6)	3,159(5.0)	3,245(3.1)	3,198(1.2)
	상용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334(2.7)	3,337(5.0)	3,426(2.8)	3,369(1.0)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647(3.2)	2,646(3.1)	2,729(3.1)	2,729(3.2)
	초과급여	184 (1.7)	201 (9.3)	199(9.2)	202(11.8)	216(8.5)	216(6.8)
	특별급여	537 (1.8)	516 (-3.7)	488(-2.3)	489(13.2)	482(-1.3)	424(-13.3)
	비상용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389(0.7)	1,370(-3.2)	1,416(1.9)	1,431(4.4)
5~299인	소계	2,764 (3.8)	2,836 (2.6)	2,795(2.3)	2,822(4.7)	2,894(3.5)	2,846(0.8)
	상용임금총액	2,938 (3.7)	3,008 (2.4)	2,966(2.4)	2,993(4.7)	3,060(3.2)	3,007(0.5)
	정액급여	2,433 (4.3)	2,504 (2.9)	2,491(2.9)	2,494(2.5)	2,565(3.0)	2,555(2.4)
	초과급여	160 (3.0)	172 (7.5)	170(7.0)	175(8.6)	182(7.0)	184(5.2)
	특별급여	345 (-0.3)	332 (-3.6)	304(-3.8)	324(22.1)	312(2.7)	269(-17.0)
	비상용임금총액	1,392 (7.0)	1,390 (-0.1)	1,390(-0.1)	1,354(-4.6)	1,418(2.1)	1,420(4.9)
300인 이상	소계	4,447 (3.7)	4,678 (5.2)	4,598(5.3)	4,657(10.5)	4,777(3.9)	4,692(0.8)
	상용임금총액	4,583 (3.6)	4,827 (5.3)	4,732(5.4)	4,752(10.4)	4,923(4.0)	4,798(1.0)
	정액급여	3,033 (4.3)	3,272 (5.8)	3,238(5.4)	3,269(7.7)	3,398(4.9)	3,418(4.6)
	초과급여	270 (-1.6)	316 (16.9)	306(16.6)	315(25.4)	352(14.9)	343(8.9)
	특별급여	1,220 (3.0)	1,239 (1.5)	1,188 (3.1)	1,168(14.6)	1,174(-1.2)	1,037(-11.2)
	비상용임금총액	1,219 (0.8)	1,354 (11.1)	1,379(11.7)	1,620(17.7)	1,390(0.8)	1,575(-2.8)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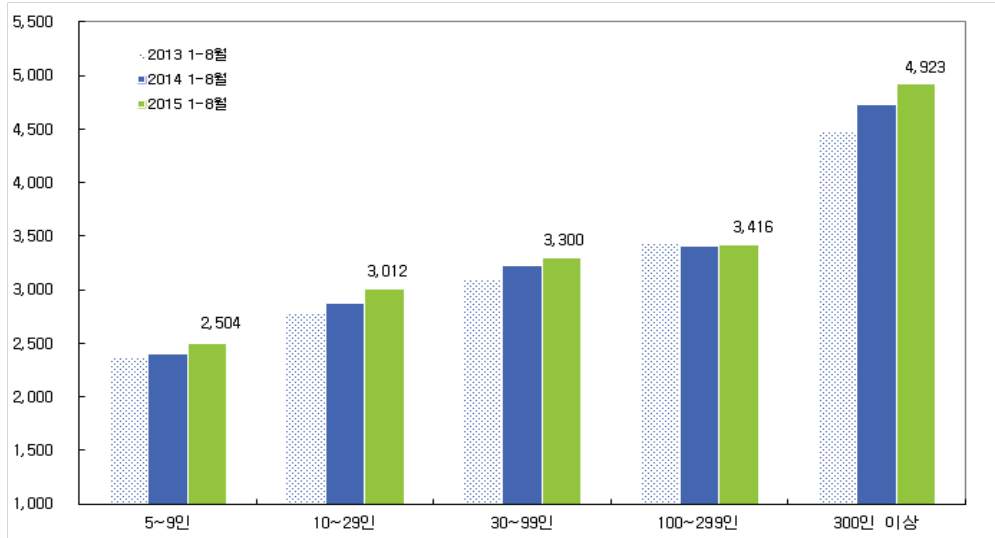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사업체 규모별로 비상용근로자의 1~8월 월평균 임금총액을 보면, 중소기업의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평균대비 2.1% 상승한 1,418천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는 0.8% 상승한 1,390천 원임.

[그림 10]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1~8월 평균 임금총액(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주: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한 166.3시간(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임시공휴일(8.14)을 휴일로 보면 전년동월대비와 같음))

- 2015년 8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7시간 증가한 166.3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170.9시간)과 소정실근로시간(158.2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8%, 2.0% 증가한 반면, 초과근로시간(12.7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함.
 - 비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19.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함.
- 2015년 1~8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4% 증가한 172.0시간임.

〈표 9〉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8월 평균		1~8월 평균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전체 근로시간	172.6 (-1.0)	171.4 (-0.7)	171.3 (-1.4)	163.6 (-3.7)	172.0 (0.4)	166.3 (1.7)
상용 총근로시간	178.1 (-1.0)	177.1 (-0.6)	176.8 (-1.3)	167.9 (-4.0)	177.7 (0.5)	170.9 (1.8)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5.6 (-1.0)	164.1 (-0.9)	163.9 (-1.7)	155.1 (-4.6)	164.7 (0.5)	158.2 (2.0)
상용 초과근로시간	12.5 (-2.3)	12.9 (3.2)	13.0 (5.7)	12.8 (4.1)	12.9 (-0.8)	12.7 (-0.8)
비상용근로시간	122.5 (0.2)	117 (-4.5)	118.2 (-4.8)	119.5 (-3.1)	114.9 (-2.8)	119.0 (-0.4)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8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177.7 시간)은 전년동 평균대비 0.5% 증가한 반면, 비상용근로자(114.9시간)는 전년동평균대비 2.8% 감소함.
- 2015년 8월 산업별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64.1시간, -1.3%), 음식숙박업(170.2시간, -1.2%), 광업(171.7시간, -1.0%) 부문에서만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감소함.
 - 이외 산업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증가함. 특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170.0시간, -1.0%), 여가관련서비스업(158.3시간, 2.2%)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총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86.3시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175.9시간)으로 나타남.
- 2015년 1~8월 산업별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8시간, 1.3%)이었으며, 동시에 근로시간이 가장 긴(191.8시간) 산업으로 나타남. 이외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0.9 시간, 1.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63.7시간, 0.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64.1시간, 0.7%) 등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8월 평균	8월		
전 산업	172.6(-1.0)	171.4(-0.7)	171.3(-1.4)	163.6(-3.7)	172.0(0.4)	166.3(1.7)
광업	180.6(-2.5)	179.4(-0.7)	179.1(-1.3)	173.4(-1.6)	178.7(-0.2)	171.7(-1.0)
제조업	185.0(-0.8)	185.4(0.2)	185.5(-0.1)	172.3(-4.0)	185.6(0.1)	175.9(2.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4(-1.2)	170.5(-1.7)	170.5(-2.8)	166.2(-4.5)	170.5(0.0)	164.1(-1.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2.0(-1.5)	177.8(-2.3)	178.0(-3.1)	173.6(-4.5)	177.2(-0.4)	174.2(0.3)
건설업	152.7(0.1)	148.5(-2.8)	148.7(-3.7)	143.1(-2.3)	147.2(-1.0)	146.1(2.1)
도매 및 소매업	173.4(-0.6)	172.3(-0.6)	172.1(-1.4)	165.1(-3.5)	172.5(0.2)	165.1(0.0)
운수업	177.8(-2.1)	173.1(-2.6)	172.8(-3.4)	168.5(-5.1)	173.3(0.3)	171.1(1.5)
숙박 및 음식점업	177.3(-5.0)	175.2(-1.2)	173.5(-1.8)	172.3(-5.5)	174.3(0.5)	170.2(-1.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0(-0.5)	161.9(-0.7)	162.4(-1.2)	154.7(-4.9)	163.7(0.8)	158.0(2.1)
금융 및 보험업	162.7(-0.4)	163.4(0.4)	163.6(-0.2)	155.6(-2.3)	163.8(0.1)	156.3(0.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5(-1.0)	190.1(-0.7)	189.4(-1.9)	182.6(-3.1)	191.8(1.3)	186.3(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9(-0.8)	163.3(-0.4)	162.9(-1.2)	154.9(-2.8)	164.1(0.7)	157.5(1.7)
사업서비스업	172.3(-0.5)	171.9(-0.2)	171.6(-1.0)	166.1(-3.3)	172.2(0.3)	170.0(2.3)
교육서비스업	150.6(-0.3)	152(0.9)	153.1(0.5)	148.3(-4.7)	152.3(-0.5)	150.7(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0(-1.6)	169.6(-1.4)	169.2(-2.6)	164.0(-4.5)	170.9(1.0)	167.3(2.0)
여가관련서비스업	158.0(-0.1)	158.9(0.6)	159.1(0.4)	154.9(-2.0)	160.0(0.6)	158.3(2.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5(-0.8)	162.9(-2.7)	163.5(-3.6)	158.3(-7.4)	162.8(-0.4)	160.1(1.1)

-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 2)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반면 전년동평균대비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147.2시간, -1.0%)이었으며, 동시에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147.2시간) 산업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52.3시간, -0.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62.8시간, -0.4%) 등으로 나타남.

○ 2015년 8월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함.

– 중소기업(5~299인)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7.2시간(1.8%↑)이며, 대규모 사업체(300인 이상)의 총근로시간은 162.7시간(1.3%↑)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사업체 세부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을 보면, 5~9인 사업체는 162.1시간(1.1%↑), 10~29인 사업체는 166.4시간(2.2%↑), 30~99인 사업체는 170.2시간(3.0%↑), 100~299인 사업체는 170.4시간(0.5%)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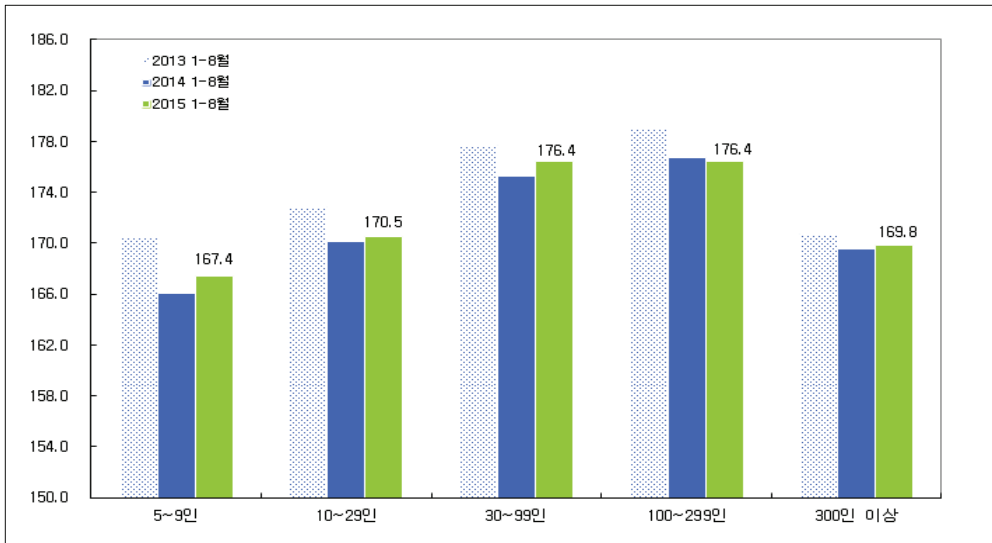
○ 2015년 1~8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함.

– 중소기업 사업체(5~299인)의 1~8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5% 증가한 172.5시간이며,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는 167.4시간(0.8%↑), 10~29인 사업체는 170.5시간(0.2%↑), 30~99인 사업체는 176.4시간(0.6%↑)으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 그러나 100~299인 사업체에서는 전년동평균대비 0.2% 감소한 176.4시간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대규모 사업체(300인 이상)의 1~8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169.8시간(1.1%↑)으로 나타남.

[그림 11] 사업체규모별 1~8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주: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10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750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0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748건)보다 2건 높은 수치임.
- 지난 10월 조정성립률 52.6%
 - 지난 10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3.9%에 비해 1.3% 낮아진 수치임.

〈표 11〉 2014년, 2015년 10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 10	750	706	306	120	186	276	43	233	36	88	44	52.6
2014. 10	748	713	317	132	185	271	36	235	44	81	35	53.9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483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337건)보다 146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3.5%(159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6.5%(315건)를 차지함.

〈표 12〉 2014년, 2015년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10	483	474	159	0	80	111	124	0	8
2014. 10	337	296	87	7	68	38	96	0	40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보호 확대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일,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주요 내용으로는 1) 복수 사업장 근무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 개선, 2)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3)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 등임.
 -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았으나, 이를 재해 사업장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함.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도 확대되어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되며,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 절차를 강화함.
 -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되어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가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됨.

◆ 노동부와 건설 노사단체,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착수

-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용자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근로자단체(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을 위한 ‘노사정 실무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함.
 -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실무TF는 건설업종 관련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공인노무사)로 구성하여 ‘16.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임.
 - 취지는 법정 근로조건 준수 관행이 미흡한 건설현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구두계약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작성 관행을 건

설현장에 정착시키려는 것임.

- 주요기능으로는 1)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2)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3)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 임.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건설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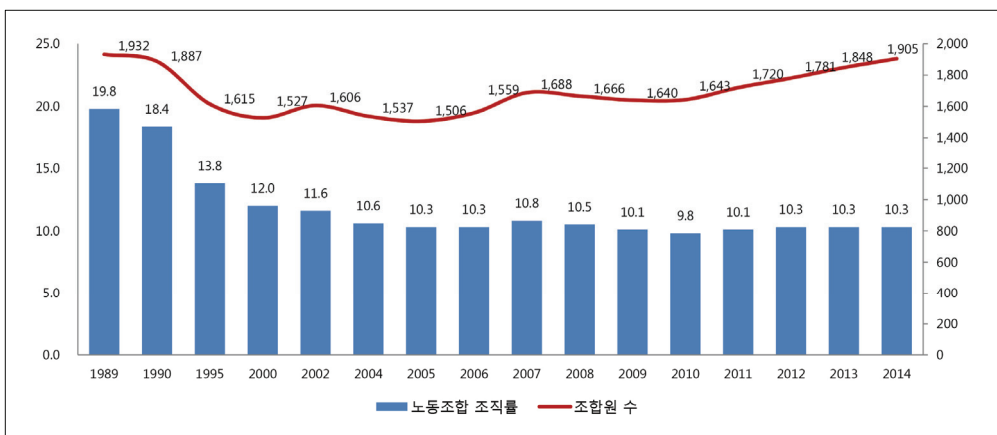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201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라고 밝혀

○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 수는 1,905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58천 명이 증가하였고, 조직률은 전년과 동일한 10.3%로 나타났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의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전년도(1,848천 명)에 비해 58천 명(3.1%)이 늘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448천 명(2.5%) 증가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조합 수는 총 5,445개로 전년대비 140개(2.6%) 증가함.

※ 노조조직률(%)=전체조합원수(1,905천명)/조직대상근로자수(18,429천명)*100
 - 조직대상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 수에서 공무원·교원 중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인원을 제외한 숫자임.

[그림 12]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 한국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44.3%(843,17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민주노총 33.1%(631,415명)이며, 미가맹 노조가 22.6%(430,881명)를 차지함.
 - 전년대비 조합원 수 변동은 미가맹이 49천 명(12.9%), 한국노총은 23천 명(2.9%), 민주노총 5천 명(0.9%) 순으로 증가함.

〈표 13〉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단위: 명, %)

총연맹별	2013	2014	증 감
한국노총	819,755(44.4%)	843,174(44.3%)	23,419(2.9%)
민주노총	626,035(33.9%)	631,415(33.1%)	5,380(0.9%)
미 가 맹	381,575(20.7%)	430,881(22.6%)	49,306(12.9%)
국민노총	20,221(1.1%)	-	△20,221(△100%)
전 체	1,847,586(100%)	1,905,470(100%)	57,884(3.1%)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 조합원 수 50인 미만 소규모 노동조합이 51.1%(2,753개)를 차지하나, 조합원 수는 2.5%(46,734명)에 해당하는 반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는 4.4%(236개)이며, 조합원 수로는 전체의 73.0%(1,390,474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노동조합 조합원규모별 조직현황

(단위: 개, 명, %)

	50명 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명 이상	총 계
노조수 (비율)	2,753 (51.1)	914 (17.0)	1,038 (19.3)	242 (4.5)	203 (3.8)	236 (4.4)	5,386 (100)
조합원수 (비율)	46,734 (2.5)	64,496 (3.4)	170,373 (8.9)	93,481 (4.9)	139,912 (7.3)	1,390,474 (73.0)	1,905,470 (100)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 한국노총,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 반대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간제·파견 사용범위 확대방안을 담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정신에 어긋난다”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정 논의에서도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노사정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문에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고 상시직 속적 업무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도록 노력해 증장기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규모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시하였음.

- 김 위원장은 이날 노사공포럼이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확대가 아니라 규모 감축이 노사정 합의정신”이라고 강조함.
- 또한, 그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비정규직 합의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정부·사용자가 합의정신을 어기고 규모를 확대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비정규직 규모 확대가 아닌 상시지속 업무·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함.

○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위 노동시장특위 전문가그룹에서 노사정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정기국회가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5대 입법안 마무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장관은 5대 법안을 함께(패키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언급하며 근로자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면 그만큼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함.

◆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 후 논란

○ 민주노총은 지난달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정부의 ‘노동 개악’에 반대해 12월 총파업을 선언함.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또한 “취업규칙 개악과 일반해고에 대한 행정지침이 발표되거나 국회에서 개악법안 처리가 시도될 경우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함.
-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노동 개악이 강행될 경우 12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평생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개혁 중단 △재벌 독식 경제 체제 폐기, 노동자 권리 보장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함.
- 이날 노동자 대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던 중에 경찰의 차벽에 막히자, 일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과격·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21일 집회 주최 단체인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 물리적 충돌을 두고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주장과 참가자들이 과격했다는 주장으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경찰은 과격·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사전에 기획한 혐의와 한상근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단체를 압수수색함.
 - 민주노총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게 한마디 사죄도 없던 경찰은 탄압으로 비난을 모면하려 한다”고 밝히며, 이번 압수수색을 경찰에 쏠린 과잉진압 비판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하며 반발함.

◆ **금융위원회,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하여, ‘성과주의’를 두고 금융 당국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금융개혁과제는 ‘금융권 성과주의문화 확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성과주의는 직원들의 월급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업무성과가 높은 직원에겐 보다 높은 평가와 많은 보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성과주의 확산 원칙을 제시함.
- 은행권도 당국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임.
 - 신한, KB국민, KEB하나 등 시중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성과급 비중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한 은행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요구뿐 아니라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등 은행의 필요에 의해서도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은 반드시 요구되고 앞으로 필수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며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성과급 비중을 올리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힘.
- 하지만, 금융산업노조는 노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함.
 - 금융노조의 김문호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지부대표자회의에서 “정부가 4대 개혁 중 금융개혁을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확정하고 본격화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자율로 추진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내용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노조는 이에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며, 계속 추진 시 한국노총에 노사정 합의 파기를 촉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고, 각 지부의 노사간 보충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있을 경우 노조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침도 내림.
- 한국노총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금융당국이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를 일방 추진한다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행동에 옮기는 중대결심을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함. **[KIL]**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